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이용자 현장 간담회」

- 모 두 말 씀 -

2018. 4. 10.

금 융 위 원 장  
최 종 구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새생명이 움트는 따사로운 봄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허 식 이사장님, 이대훈 농협은행장님,  
이동빈 수협은행장님,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농어업 사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주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농림수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대표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농림수산업은 자연재해, 국제시장에서의 가격변동 등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농어민의 경영능력을 증명할 재무제표 부재 등으로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큼니다.

자연경관 보전, 식량안보 달성, 국가균형발전 등  
긍정적인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 effect)를 동반하므로

시장 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자금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민의 신용을 보장하여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2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을 설립하였습니다.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971.1.13 제정, 농신보 1972.3.20 설립

약 50여년간 농신보는 농어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으며, 지금도 48만건, 13조원('17년말, 잔액기준)의 신용보증을 통해 농어민에 대한 금융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신보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농어민 여러분들과 농신보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 보증기관별 현황 ('17년말 기준)

구 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설립일자	'72. 3. 20	'76. 6. 1.	'89. 4. 1.
주요 보증대상	농어업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창업·수출 중소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
동일인 보증한도*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 예외보증 최대 50억원	30억원 * 예외보증(시설자금 등) 최대 100억원	
보증료율	0.3~1.0%	0.5~3.0%	
보증비율	<b>80~100%</b> * 일반보증 85% * 소액(2천만원 이하) 100% * 우대보증 90~95% * 2·3차 사업자 80%	<b>50~100%</b> * 일반보증 85% * 예비창업·신생기업 100% * 고용·시설자금 등 90~95% * 중견기업 등 50%	
건당 평균보증액	<b>2,800만원</b>	1.6억원	1.9억원
신규보증	3.4조원	11.8조원	5.3조원
보증잔액	<b>47.8만건</b> <b>13.4조원</b>	27.9만건 44.4조원	11.3만건 21.3조원
개인 비중	<b>83.6%</b>	27.0%	19.9%
운용배수	<b>6.9배</b>	10.1배	11.6배
대위변제율	<b>1.6%</b>	2.6%	3.5%

현재 우리 농림수산업 분야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 등에 힘입어 농·공·상(農·工·商)이 융복합되는 6차 산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6차 산업 (6차=1차×2차×3차)

농어업 분야 생산(1차 산업), 제조·가공(2차 산업), 유통·체험·관광 등(3차 산업)을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 (사례) 경북 의성의 과수원 운영업체는 사과 생산 및 지역농가 계약재배(1차), 사과와인 등 제조·가공(2차), 사과따기·과실주 제조 체험프로그램(3차)을 통해 매출액 급증('13년 7.0억 → '15년 17.5억)

농어업과 혁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sup>①</sup>(smart farm)의 도입, 청년 귀농<sup>②</sup>과 더불어 농업벤처창업 증가, 농어촌 체험마을, 곤충 농장, 팜파티<sup>③</sup>(farm party)와 같은 문화·관광 사업과의 연계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이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新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① 스마트팜 : 시설 원예·과수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에 맞춰 적정 상태로 제어하는 지능화된 농장
- ② '16년 11만명 농촌 순유입, 청년 귀농 1,340가구 (출처 : 농식품부)
- ③ 팜파티 : 농가에서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 농촌문화와 농산물을 주제로 한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살거리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사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Mckinsey & Company) 등은 혁신기술의 발전이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선도 분야로 농어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 ▶ 맥킨지(2015) : 향후 10년 이후에는 IoT 도입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의 약 20% 가량이 영농기기와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
- ▶ 골드만삭스(2015) : 센서,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정밀농업기술 분야에 적극 적용되고 있으며, '50년까지 2,400억달러(270조원) 규모의 신규시장 창출 전망

그동안 농신보가 많은 수고를 해주었지만,  
이제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농어업 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튼튼한 후원자이자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신보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이번에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 **① 첫 번째로,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던 창업자금 보증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업 벤처창업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장년층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장년 귀농어업인, 후계농어업경영인, 전문교육 이수자들이  
벤처농어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 3억원까지  
상향된 보증비율(95%)로 지원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하겠습니다.  
창업을 원하는 농어업인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의 안전망인 재기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제도개선 주요내용 ①] 창업 지원 강화

현행		개선	
창업지원 우대보증(특별보증)		창업지원 우대보증(특별보증)	
보증 대상	▶ 농어업 후계자(40세 미만)	➡	(좌동)
	▶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농어업계 고졸·대졸자, 동종 업계 3년이상 근무)		▶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업력요건 (3년) 폐지 및 연령 확대(35→40세)
	▶ 청장년 귀농어자		▶ 청장년 귀농어자: 연령 확대(45→55)
	-		▶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신설
지원	대상별 1~2억원, 90% 보증		3억원, 95% 보증
일반적 창업지원 프로그램		일반적 창업지원 프로그램	
없음		➡	신설
			▶ 보증비율 상향 (85%→90%)
재기지원		재기지원	
없음		➡	신설
			▶ 신용회복위원회 「농어업 재창업 지원 위원회」 설치(단독채무는 농신보 자체판단)
			▶ 성실실패자에 대해 채무 감면(최대 75%) 및 재기자금 지원

## ② 두 번째로, 농어업 新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농림수산업의 외연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실내농작물 재배업자, 곤충사육업자,  
농촌 체험마을 등 농어촌융복합사업자도  
농신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 혁신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업 대표 혁신분야인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최대 70억원  
까지 보증하고,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보증비율을 상향(90%)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주요내용 ②] 新성장분야 보증 확대**

현 행		개 선					
<div>보증대상(일반보증)</div> <div>▶ 「농협법」상 농업인, 「수협법」상 어업인, 「산림조합법」상 임업인 → “지역농·수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div> <div>▶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림수산물 유통업 영위 중소기업 등</div> <div>-</div> <div>-</div>		➡	<div>보증대상(일반보증)</div> <div>▶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 농어민 → “농업·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div> <div>(좌동)</div> <div>▶ 농식품부가 인정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농촌융합산업법」 §8)</div> <div>▶ 농수산 가공품을 원료로 2차 가공하는 중소기업 등</div>				
<div>스마트팜(예외보증)</div> <table> <tr> <td>보증한도</td> <td>개인 30억, 법인 50억</td> </tr> <tr> <td>보증비율</td> <td>85%</td> </tr> </table>		보증한도	개인 30억, 법인 50억	보증비율	85%	➡	<div>스마트팜(예외보증)</div> <div>법인 70억원으로 상향</div> <div>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는 90%</div>
보증한도	개인 30억, 법인 50억						
보증비율	85%						

**③ 세 번째로, 농림수산업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본연의 역할에도 더욱 충실하고자 합니다.**

영세 농어민에게 소액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전액보증\*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농어업인의 총보증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전액보증

이렇게 지원을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은  
농어민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상환해주신 덕분에  
전액보증임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 대위변제율('17년말) : 보증금액 3천만원 이하 **0.5%** / 전체평균 **1.6%**

그 보답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해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아가, 동일한 보증한도를 최대 20억원<sup>①</sup>으로 높이고, 보증료 할증체계도 개편<sup>②</sup>하여 농어업의 대형화·융복합화에 필요한 보다 많은 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비용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 ① 동일한 신용공여 한도 상향 : [개인] 10→15억, [법인] 15→20억  
② 보증료 할증구간 : [개인] 1, 5 → 2, 7억원, [법인] 1, 5 → 2, 7, 10억원  
→ 연간 보증료 부담을 약 40억원 경감

#### 4] 마지막으로, 적극적 역할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농신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창업지원 확대, 보증한도 상향 등에 맞춰 의무근무기간 도입(예: 5년), 전문직 채용, 기술심사 강화\* 등 보증심사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 (현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개선) 기술신용평가기관(TCB)·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을 외부 기술평가기관에 추가

이와 함께, 농어업의 효율적 경영과 귀농 인구의 성공적 안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관리 컨설팅\*도 강화하겠습니다.

\* 전문 컨설팅 인력 충원, 컨설팅 대상 확대(보증금액 5억 이상 → 3억 이상)

## 4 마무리말씀

아시아경제 전문 저널리스트인 조 스티드웰\*은 「아시아의 힘(How asia works, 2013)」이라는 책에서 농어업 분야의 생산성이 아시아 경제성장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 근본적인 요인이었다고 분석합니다.

\* Joe Studwell :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타임즈」,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서 아시아경제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약



그리고, 농어업 분야의 생산성 증가에는 정책적인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었다고 합니다.

※ [참고] 「아시아의 힘」

**동북아시아 국가들**(한국, 일본, 대만,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달리 **근대적 경제 성장에 성공한 요인을 분석**

- ① **(토지개혁)** 가용농지를 평등한 토대 위에서 농업 인구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 → 재화·용역에 대한 수요(내수시장) 창출**
- ② **(수출·제조업 주도 정책)** 농업 분야에서 이동한 노동력을 수출 지향적인 **제조업에 투입**(export discipline)하여 **산업화 촉진**
- ③ **(금융자원 배분)** 노동 집약적인 **농어업**과 수출 지향적인 **제조업** 부문에 자본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적절하게 배분**

이미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농업을 결합한 **혁신성장**의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농업 혁신성장 성공사례** (2018 농업전망, 농촌경제연구원)

▶ **농업과 사물인터넷(IoT)의 결합**

- ① (주)퓨처텍은 IoT 딸기 재배시스템을 구축, 경작자는 온도 및 조명제어, 물주기, 침입자 관리 등 **농장관리를 원격으로 제어**
- ② 경북 성주 'Clean 성주 참외팍 창조마을'은 **IoT 기술**을 적용하여 참외 생산농가의 **생산, 재배 및 유통을 지원**

▶ **청년농의 농업혁신**

- ③ 영농정착과정을 이수한 청년들이 설립한 '록야'는 **고마감자 대량 생산**에 성공했으며, **대형 편의점 업체와 협업, 간편 가정식 제품도 개발**
- ④ 카이스트 출신 청년 두 명이 설립한 만나씨이에이(MANNA CEA)는 **수경재배 방식과 IoT를 결합한 농장 자동화 기술**로 생산성을 크게 개선

이번 개선방안을 발판으로 **농신보의 금융지원 확대**가 **농어업이 새롭게 맞이한 新성장시대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